

마케도니아의 자연환경과 초기 역사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과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고 그리스

일반적으로 ‘마케도니아’라는 국명(혹은 지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영토를 크게 확장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역은 현재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지역이 중심이다. 마케도니아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 덕분에 영광의 이름으로 남았다. 그런데 옛 유고 연방에 속해 있다가 1991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분리 독립한 이후부터 그리스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리스에도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케도니아의 상징성 때문이었다. 1993년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유엔에 가입할 때 그리스의 반대로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잠정 명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유럽연합 가입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시도할 때마다 그리스의 방해에 시달리던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2018년 그리스와 프레스파 협정을 체결하고 2019년 국명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공식 변경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리스와의 갈등도 잦아들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우방인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북마케도니아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국명이 바뀌고 지난달 18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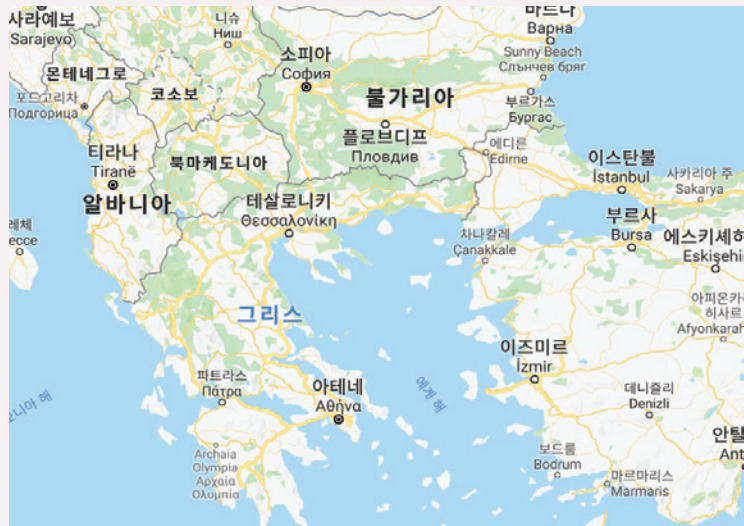


그림 1. 현재의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 출처 : 구글지도

식량자원, 산림자원 및 광물자원

고대 마케도니아의 영역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필리포스 2세 시대의 마케도니아의 영역은 [그림 1]의 지도상으로 보는 바와 같다. 이 지역에는 4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다. 동쪽에서부터 차례로 네스토스강, 스트리몬강, 악시오스강, 할리아크몬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할리아크몬강을 제외하면 3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서 남북 간 교류에 공헌해왔다. 악시오스강은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발원하여 그리스를 거쳐 테르메 만에 이르는 376km의 강으로 연평균 초당 유수량은 164㎥에 달한다. 악시오스강은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쳐 흘러 그 하구에서 갈리코스강(고대의 에게이도로스강)과 합류했다. 마케도니아 최초의 도시 아이가이는 할리아크몬 강기슭의 오른쪽에 있다. 이 강 역시 그리스에서는 최대급 하천에 속하며 전장 297km, 연평균 초당 유수량은 54㎥이다. 훗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아이가이에서 루디아스 호수 북쪽의 페라이로 옮겨진다. 테르메 만을 에워싼 비옥한 연안 평야 지역은 예로부터 마케도니아의 곡창지대이며 내륙에 펼쳐진 산악들은 오크를 비롯한 양질의 목재를 제공하는 삼림지대였다. 오늘날 마케도니아에서 경작 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30%로 추산된다. 테르메 만에 닿아 있는 할리아크몬강 남쪽의 메토네는 기원전 733년경 에레트리아인에 의해 건설된 폴리스인데, 식민자들을 끌어들인 요인은 배를 만드는 데 쓰는 양질의 목재와 후술할 풍부한 금·은 자원 덕분이라고 추측된다. 테르메 만 동남쪽으로 뻗은 3개의 소 젓꼭지 같은 칼키디케 반도도 역시 양질의 목재 산지인 동시에 금광과 은광이 개발된 지역이었다. 이 반도의 가장 서쪽의 지협 부분에는 코린토스의 유명한 식민도시 포티다이가 건설되었다. 또 고전기의 아테네도 이 지방에서 목재를 구입했음을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케도니아는 광물자원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유명한 산지는 스트리몬강 동쪽의 판가이온 산이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이 산은 높고 웅장한 산맥으로 금·은 광맥이 묻혀 있다.”(제7권, 112장)고 적고 있다. 1977년 베르기나를 발굴할 때나 1980년 신도스를 발굴할 때 다수의 금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헤로도토스의 기술이 맞았음을 웅변한다. 그 밖에도 갈리코스강이나 칼키디케 반도의 스트라토니케 등이 금의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기후, 자연생태, 지형

마케도니아는 내륙 지방과 연안 지역의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 칼키디케 반도의 연안 지방이나 타소스섬 등에서는 올리브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지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올리브 나무는 차츰 자취를 감추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난다. 내륙 지방은 여름철에는 아테네보다 더우면서 강우량도 많은 반면 겨울에는 꽤 추워지며 눈도 자주 내린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광활한 삼림지대는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옛 삼림에는 사슴, 야생 소, 야생 돼지뿐만 아니라 곰, 사자 같은 맹수도 살았다고 추정된다. 헤로도토스는 이 지방에 사자나 야생 소가 서식했다고 기술하였다(『역사』 제7권, 126장). 또한 펠라에서 출토된 모자이크화에는 사자를 사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야생 소의 커다란 뿔이 그리스에 수출하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도 당시의 생태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테르메 만의 경관은 고대의 경관과는 크게 달라져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까지 테르메 만은 만으로 흘러드는 깊은 강이 오늘날보다 훨씬 북서쪽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기원전 5~1세기에 할리아크몬강, 악시오스강, 갈리코스강의 충적층에 쌓인 진흙이 테르메 만 위쪽에 델타(삼각주)를 형성해 해안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만 위쪽에는 넓은 늪지가 만들어졌다. 로마 제국 후기에는 토사의 침전이 한층 활발해진 결과 루디아스 호수가 형성된 이래 1900년경까지 대략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펠라 시 부근까지 뚝단배가 왕래할 수 있었다.



그림 2.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 사망 무렵의 마케도니아 왕국 / 출처 : 위키피디아

마케도니아의 전설

신화에 의하면 마케도니아인은 제우스와 튀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마케돈의 후예로 예전에는 엘리아 지방에 살았다. 그들은 청동기 시대가 끝날 무렵 핀도스 산악지대에서 이 지방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에 관해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테네 인은 옛날에는 펠라스고이 민족이었고, 라케다이몬인은 헬라스 민족이었다. (중략) 후자는 몇 번씩이나 이동을 거듭한 민족이다. 데우칼리온 왕 시대에는 오싸산과 올림포스산에 가까운 히스티아이오티스라는 지방에 살았지만, 카드메이아에 의해 히스티아이오티스에서 쫓겨난 후 핀도스 산악지방에 살면서 마케도노스 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 후 핀도스에서 드리오피스 지방으로 이동했다가 마지막으로 펠로폰네소스 지방으로 이동해 도리스 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역사』 제1권, 56장). 이 기술은 마케도니아인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리스 족이 공통 조상의 후예였음을 보여준다.

마케도니아 최초의 왕 페르디카스 1세가 테메노스의 자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기록이 일치한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 오래 전 아르고스에서 테메노스의 후예에 해당하는 삼 형제, 가우아네스, 아에로포스, 페르디카스가 일리리아인의 나라로 도망갔지만, 뒤에 일리리아에서 산을 넘어 북부 마케도니아의 레바이아 고을에 도착했다” (『역사』 제8권, 137장). 처음에는 거기서 왕을 위해 막노동을 하다가, “삼 형제는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에 정착해 (고르디아스의 아들) ‘미다스의 정원’이라 불리던 곳에 살았다. (중략) 이 정원 위쪽에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등반이 불가능한 베르미온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을 점령하고 근거지로 삼아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방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역사』 제8권, 138장). 이 기록은 아르고스에서 이주해온 테메노스 가문의 삼 형제가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아마도 피에리아 땅으로 내려가 거기 살고 있던 마케도니아의 아게아다이(‘아게아스의 자손들’이란 뜻) 씨족과 다른 계열 부족들의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세워가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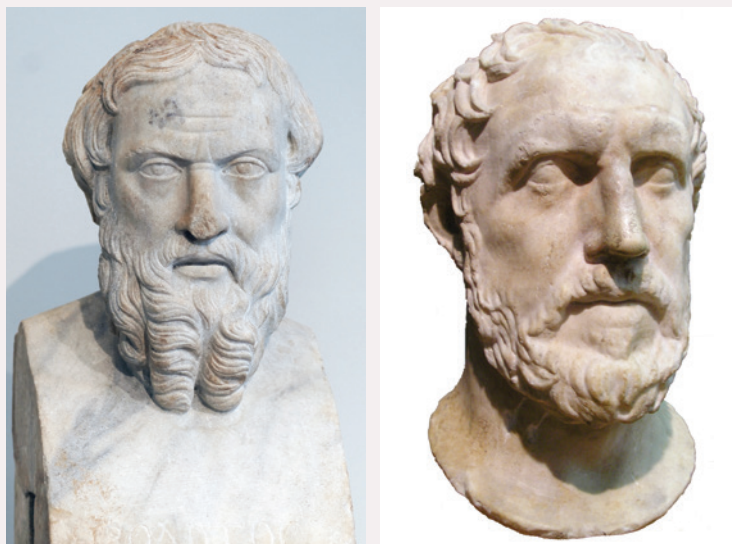


그림 3. 헤로도토스 흉상(좌,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원본을 2세기 로마 때 카피한 작품)과 투키디데스 흉상(우, 로마 온타리오 박물관) / 출처 : 위키피디아

수도 아이가이의 건설

좁은 의미의 마케도니아 지방이란 올림포스산 북쪽에서 리디아스강과 할리아크몬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연안평야 지대를 가리킨다. 기원전 7세기 중엽 페르디카스가 토착 마케도니아 왕가 아르게아다이 씨족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처음에는 피에리아 북부의 구릉 지대에 왕국을 세웠다가 뒤이어 평야의 북서쪽 일부를 획득해 그곳에 도읍을 정했다. 계속해서 미에자와 나우사를 합병해 할리아크몬 강 이남의 연안 평야 지대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렇게 성립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 후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장했으며 왕위는 그 일족이 세습했다. 이 왕조를 일반적으로 테메노스 왕조(혹은 아르게아다이 왕조)라 부른다. 디오도로스의 역사책에는 수도 건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신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풍요로운 이 땅의 지배권은 고귀한 테메노스 가문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둘러 양이 많은 보티아이스의 땅으로 가는 게 좋다. 거기서 어려운 일은 새벽녘에 잠에 빠진 흰 뿔이 달리 새하얀 산양을 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의 평원에서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폴리스의 수도를 세우도록 하라” (제7권, 16장). 마케도니아 왕국 최초의 수도가 아이가이로 불린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신탁은 수도의 명칭 ‘아이가이’가 고대 그리스어의 ‘산양’(aiges)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페르디카스와 결부된 이 신탁 자체는 수도 건설 이전에 받은 것이기보다 오히려 수도를 건설한 뒤 그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마케도니아의 초기 왕정

마케도니아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왕정이 최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은 지배자인 동시에 군사·정치·종교에서 최고의 권능을 가진 존재였다. 왕 주변에는 ‘장로회’나 왕의 친구들인 귀족 신분의 ‘헤타이로이’가 존재했으며 그들은 초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을 지탱하는 군사력의 주체이기도 했다. 왕은 ‘헤타이로이’ 집회에서 선출되고, 그 집회는 때로는 왕을 견제하는 힘도 갖고 있었다. 물론 농사와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일반 민중도 존재했다. 하지만 초기에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자립적이지 못했던 존재로 왕가와 직결되었던 사회집단이자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급에 종속되어 있었다. 페르디카스 1세에 의해 왕조의 기틀이 잡힌 뒤 기원전 5세기 후반까지 왕위는 아르가이오스 1세, 필리포스 1세, 아에로포스 1세, 아르케다스, 아민타스 1세, 알렉산드로스 1세, 페르디카스 2세, 아르켈라오스 1세의 순서로 승계되었다. 아민타스 1세 무렵까지 마케도니아는 악시오스강 서쪽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며, 특히 알렉산드로스 1세 이후에는 왕국의 정치·군사 제도의 정비를 착실히 진행했다.

마케도니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전쟁 무렵부터였다. 다리우스가 유럽 땅에 남겨두었던 메가바조스 휘하의 페르시아군은 스트리몬강둑에 살던 파이오니아 족을 제압하고 7인의 페르시아인 인을 사절로 마케도니아에 파견했다. 이 일행은 아민타스 1세(기원전 540~498년경)를 알현하자마자 페르시아 왕의 신탁이 된다는 표시로 흙과 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민타스의 아들 - 훗날 알렉산드로스 1세(기원전 498년~454년경) - 은 페르시아 왕의 사절단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개하여 계



그림 4. 아폴로 두상이 새겨진 아르켈라오스 1세 은화의 앞면과 뒷면, 뒷면의 말이 눈에 띈다.
/ 출처 : 위키미디어

락을 꾸며 그들을 살해했다. 한편 알렉산드로스 1세는 올림피아 경기에 참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인 참가자들이 경기 출전 자격은 그리스인들에게만 있다고 해서 그를 배제하려고 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 1세는 자신이 아르고스인의 혈통임을 입증해 보여 결국 경기 출전을 승인받았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알렉산드로스 1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서 마케도니아의 친그리스적 경향을 보여준다.

페르디카스 2세(기원전 454~413)의 치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해당한다. 그는 그리스 세계의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편승해 기민하고 교활한 처세로 어부지리를 얻는 한편 복잡한 외교정책을 구사해 자국의 세력 확대를 꾀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기의 왕 아르켈라오스 1세(기원전 413~399년)는 현자로 평판이 높았으며 개혁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선 외적의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취약한 지점에 요새를 쌓고 국내에는 여러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깔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병과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등 마케도니아의 전력을 선대왕 8명의 치세 중에 비축된 것의 총합에 맞먹을 정도로 강화했다”고 한다(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100장). 또 수도를 아이가이에서 펠라로 옮기고 새 수도의 궁정에 많은 문학과 예술인을 초빙해 그리스 문화의 도입에 노력했다. 3대 비극작가 중 한 사람인 에우리피데스도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며 「박코스 여신들」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아르켈라오스 왕이 다저놓은 바탕 위에서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힘을 바깥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